



세이브더칠드런 최혜정 씨

따뜻한 뜨개질 갓난아기 살리는 뜨개질

전 세계 빈곤 아동을 돕는 국제기구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서 모자로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가?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통해서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은 전 세계 영유아를 살리기 위한 털모자를 직접 떠서 세이브더칠드런의 해외사업장에 보내주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그 중심에 있는 자원개발부장 최혜정 씨를 만났다.

가슴이 시키는 가장 따뜻한 일

20년간 광고회사의 잘나가는 카피라이터로 살아온 최혜정 씨, 그녀의 인생이 변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서다. 그녀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하는 나눔 운동은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이다. 전 세계 신생아들에게 보내질 모자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폐렴이나 저체온증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해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하고 있는 '어머니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200만 명의 아기들이 자신이 태어난 날 사망한다고 한다. 이렇게 죽어가는 신생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체온증을 막아줄 수 있는 털모자다.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이 2007년부터 시작한 것이 모자뜨기 캠페인이다. 2011년 어느덧 시즌5를 맞았다.

최혜정 씨는 모자뜨기 캠페인으로 과거에 느끼지 못하던 가슴 벅참을 느낀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해 모자를 보내오면 코끝이 짙해져요." 뜨개질을 할 줄 모르던 그녀도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며 뜨개질을 배웠다.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이면 모자를 완성하는 실력에 이르렀다. "모자뜨기를 하면서 인내심을 배웠어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주위 친구들에게 직접 뜬 목도리를 선물하기도 했지요."

그녀는 완성된 모자를 가지고 아프리카 말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말리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신생아는 탄생과 함께 죽음에 노출돼 있어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모자를 씌어주면 2℃ 정도 보온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모자가 아이를 살리는 거죠."



행복한 변화,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
세이브더칠드런의 모자뜨기 캠페인처럼 전 세계의 죽어가는 신생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털모자는 아기의 체온을 보호하고 유지시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캥거루 케어(Kangaroo Care)방식을 통해 신생아의 사망률을 70%까지 낮출 수 있다. 모자뜨기 캠페인이 의미 있는 이유다.

최혜정 씨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진 것으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 멋진 변화 아닌가요?" 라고 아이처럼 웃으며 '기분 좋은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시즌5에 모아진 모자는 세이브더칠드런이 2012년 3~4월경 아프리카 잠비아, 아시아 방글라데시로 보낼 예정이다. 하나의 모자로 한 생명을 살리는 캠페인은 계속 진행 중이다.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모자를 씌어주면 2℃ 정도 보온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모자가 아이를 살리는 거죠."

이번 시즌5에 모아진 모자는 세이브더칠드런이 2012년 3~4월경 아프리카 잠비아, 아시아 방글라데시로 보낼 예정이다. 하나의 모자로 한 생명을 살리는 캠페인은 계속 진행 중이다.



모자뜨기 캠페인 참여하기

예쁘게 뜬 모자를 2012년 2월 29일까지 '세이브더칠드런'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모아진 모자는 잠비아와 방글라데시 신생아에게 전달된다.